

2021 KBS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음향제작기

글. 엄민호 KBS 중계기술국 팀장

작년 추석,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 이어 올해 추석에는 ‘피어나라 대한민국-심수봉’의 언택트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과 녹화방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1년 한가위 역시 KBS는 TV를 통한 대국민 선물을 준비했고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심수봉 가수의 26년 만의 TV 단독 콘서트이며, 1,000명의 온라인 관객이 Zoom 앱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했다. 공연 실황은 2021년 9월 19일 저녁 8시 KBS2에서 방송됐고, 시청률 11.8%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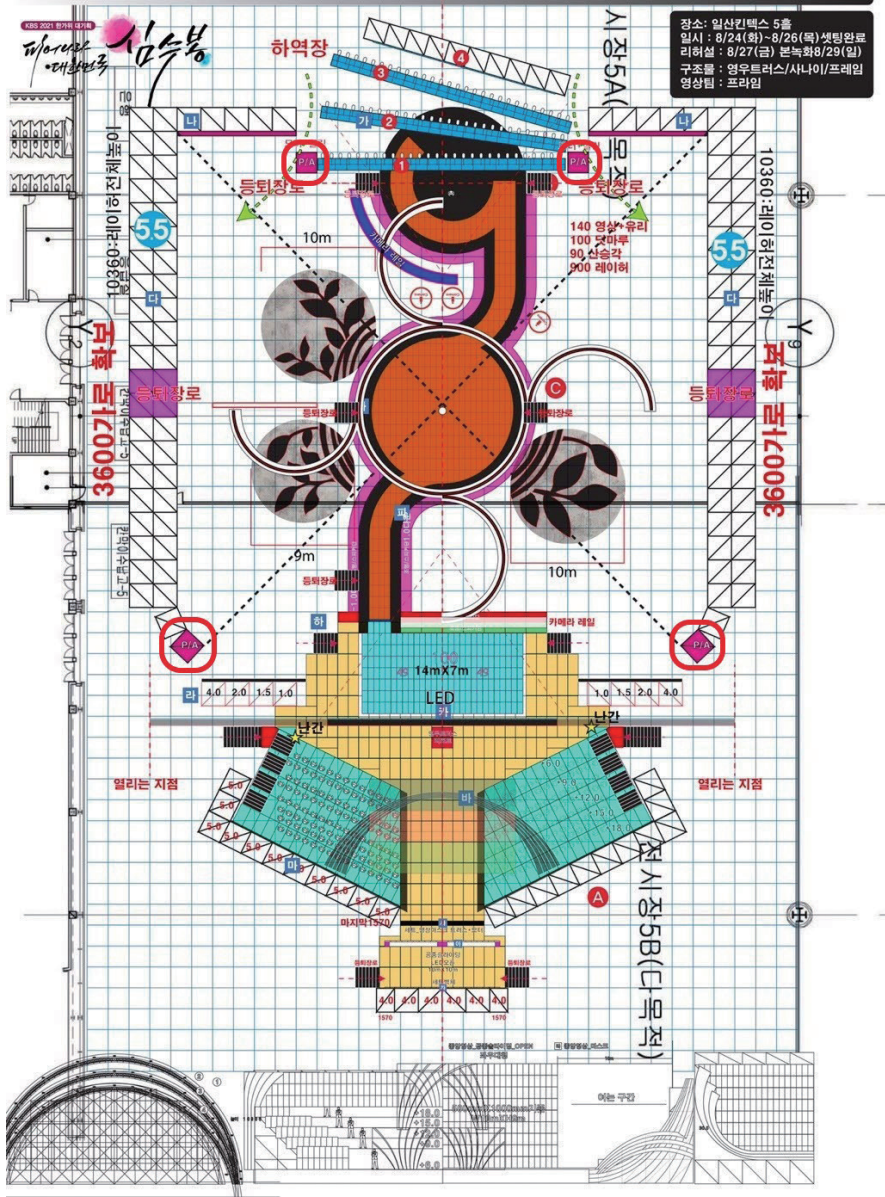


‘피어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고자 기획된 초대형 비대면 콘서트로서 KBS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대와 제작리소스가 투입되었다.

KBS와 심수봉 가수에게도 역대급의 규모로 기록된 이번 공연실황 음향제작의 준비와 제작과정을 이번 지면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작준비

이번 공연 음향제작의 경우, 심수봉 가수 특유의 톤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다.



연습 음원 모니터

공연 연습은 연주팀, 메인보컬, 게스트, 코러스 모두 참여했고, ‘KBS 불후의 명곡팀’의 장지연 밴드마스터가 편곡을 담당했다. 연습 음원을 들어보니 심수봉 씨 목소리가 너무 작아 운용 레벨로 올리면 주변 소리가 많이 유입되어 명료도를 높이기 쉽지 않았다. 드럼, 퍼커션 등 레벨이 큰 악기 주변에는 차음판을 설치하고, 음향업체(라이브미소)와 협의 후 레코딩 S/N 향상을 위해 PA와 모니터 특성 레벨을 최소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수봉 씨는 양쪽 In-ear를 모두 착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심수봉 씨에게 설득 과정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음향팀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다. 음향품질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보이스 톤 설정

음원사이트에 나와 있는 심수봉 공연실황 앨범을 모두 들어보며 보이스 톤을 분석했다. 심수봉 씨 특유의 적당한 비음과 울림, 때로는 온몸을 전율케 하는 감성적인 음색 등... 한 달 동안 심수봉 앨범 음원을 열심히 들어보니 이 좋은 목소리를 방송에 잘 표현해서 시청자에게 들려주고 싶어졌다.

연습 음원을 받아서 대략적인 믹싱을 해보며 보이스 톤 설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현장 상황과 가수의 컨디션, 감정 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을 고려하여 본공연 보이스 톤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사전 체크 사항

대형 공연이벤트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녹화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회의 단계에서 방송믹서의 위치와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PA 믹서와 메인 스피커가 들어설 위치와 공간을 세트감독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음향석에서 Near Field 스피커와 헤드폰으로 믹싱을 해야 해서 중계차와 무대 사이에 독립적으로 분리된 장소가 필요 하다. 대개 회의실이나 대기실을 음향석으로 결정한다. 이 공간에 방송믹서, PA 믹서, 멀티채널 레코더, DAW, 오디오 레벨미터, 비디오 모니터 등이 설치된다.

오디오 레코딩 시트(인풋 리스트) 작성

공연녹음 시 레코딩 시트의 작성과 공유, 확인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음향업체와 내용을 공유하여 완벽한 레코딩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공연 진행 시 항상 꼼꼼하고 확실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레코딩하는 전체 채널 개수가 140개를 넘었지만, 음향업체(라이브미소)와 협의하여 120채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했다.

인터컴 종류 및 수량 파악

대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연출과 현장 스태프에게 필요한 유무선 인터컴의 수량도 많았다. 20개가 넘는 인터컴 수량과 용도를 확인하고, 세부계획과 구축은 TV-4호 중계차 음향감독이 담당했다.

오케스트라 MR, 합창, 박수 및 합성 사전녹음 (KBS홀)

KBS 관현악단과 대규모 합창 트랙의 MR 제작을 KBS홀팀에서 담당해 주었다. 본 공연에서는 80여 명의 합창 단원들에게 각자 In-ear를 주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해서 립싱크를 맞추기로 했다.

큐시트 확인 및 연출팀 협의

계속 버전이 바뀌는 큐시트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음향품질에 영향이 있는 사안은 PD와 협의가 필요하다. 원래 계획은 '로맨스 그레이' 노래에서 안무를 하며 헤드셋 마이크를 부르기로 했으나, 보이스 톤의 일치와 품질을 위해 핸드 마이크를 변경을 제안했다.



KBS홀 합창 및 박수 녹음

제작과정

장비 설치 및 세팅

음향석 장비 설치

음향석에는 Digico 7 방송 및 PA 믹서, Sound Device PIX 270i Recorder, Protool DAW, 라우드니스 미터, 비디오 PGM 모니터 등이 설치됐다.

중계차 타임코드 송수신 확인

녹화시간이 길고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타임코드 확인은 필수적이다. 후반작업 시 레코딩한 파일들이 타임코드 정보에 의해 DAW 타임라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 중계차에서 보낸 타임코드가 음향석의 멀티레코더로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또한, 중계차 내부에서 비디오파일 레코더로 타임코드와 비디오 PGM 녹화 상태를 체크한다.

방송믹서 입력채널 소스 확인 및 세팅

악기, 마이크, MR, SOV 등 해당 입력채널 소스의 청감레벨과 위상을 확인한다. Digico 7 방송믹서의 EQ, Comp, Group Bus, 신호 In/Out 확인 등 세부 세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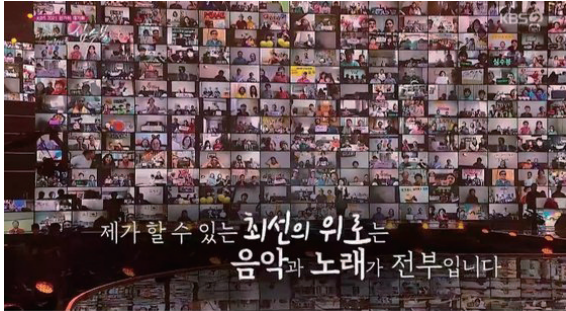
8월 27일 사전녹화

아침 07:30 음악리허설을 시작으로 09:30 첫 레코딩, 익일 01시를 넘겨 사전녹화 일정이 끝났다. 심수봉 씨 목소리가 작은 편이고 무대가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PA 확성과 모니터 레벨을 줄이고 악단은 모두 In-ear를 사용했다. 연습 때보다는 크게 불렀지만, 여전히 작은 목소리 때문에 명료도를 고려하며 최대한 레벨을 끌어올려야 했다. 방송믹서의 Direct Out 신호가 레코딩되기 때문에 오버로드 되지 않고 너무 작지 않도록 적당한 레벨로 세팅해야 한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이 녹화가 진행되어 제작 스텝들도 지쳐갔지만, 무엇보다 심수봉 씨의 체력유지가 가장 중요했다. 가수의 몸과 감정 상태에 따라 마이크로 수음되는 보이스의 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래에 몰입한

탓에 체력과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심수봉 씨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진심이 더욱 느껴졌다.

8월 29일 본 녹화 및 라이브 스트리밍

언택트 공연 당일에는 심수봉 씨가 컨디션이 더 좋아져서 보이스 톤 컨트롤이 좀 더 수월했다. 합창 사전녹음 시 박수와 연호, 합성 등을 이펙트용으로 별도 녹음하여 현장 PA 스피커로 확성했다. 특히 "심수봉! 심수봉!" 연호하는 소리에서 심수봉 씨는 감동하여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노래로 잘 표현됐고, 현장에서 믹싱하며 느낀 감정과 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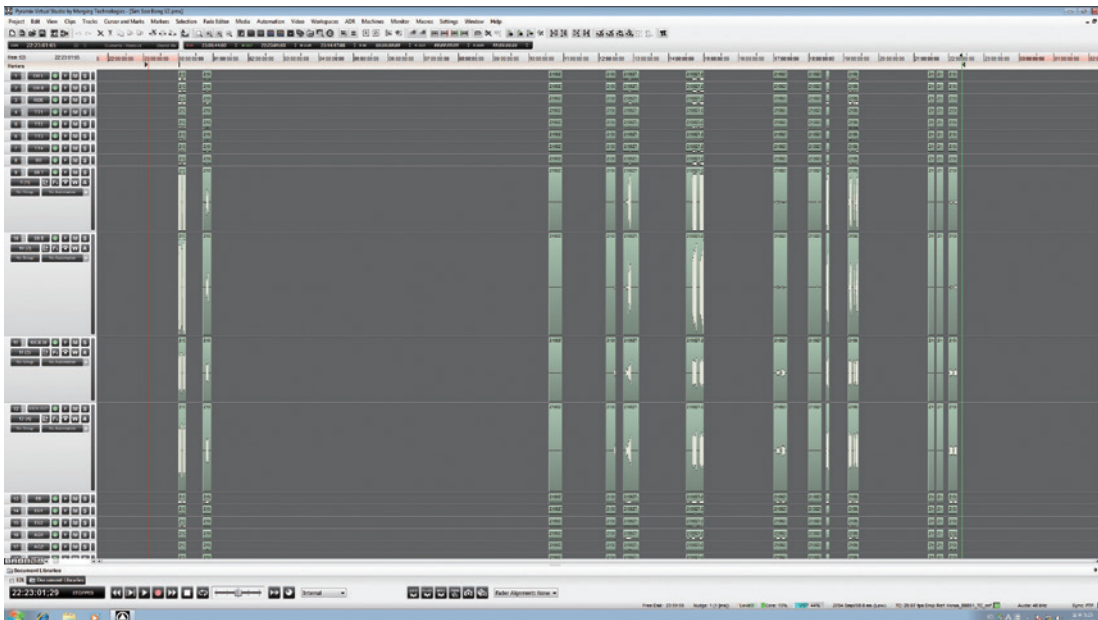
을 후반작업 믹스에 고스란히 녹여 시청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믹스 후반작업

Pyramix DAW 타임라인 세팅

8월 27일/28일 두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타임라인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오디오 파일 정리와 배치 우선하여 완벽하게 되어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임라인에 올려진 악기와 보이스의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고, 전체 톤을 맞춰간다. TV 라우드니스 규격의 한정된 다이내믹 범위 안에서 사운드를 표현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고 지저분한 소리를 없애고 깔끔하고 명료도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다.





심수봉 씨 노래의 가장 키포인트는 특유의 보이스 톤이다. 악단과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보이스 톤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8월 27일 사전녹화와 29일 본 녹화 때의 음색을 일치시키고, 보이스가 악단에 잘 스며들도록 밸런싱 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악기와 보컬의 리버브 조화, 메인 보컬과 코러스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믹스 작업을 진행했다. 옆에서 보컬믹스를 맡았던 김성민 KBS 감독 역시 믹스작업이 계속되자 조금씩 지친 모습을 보였지만, 서로의 지치고 힘든 부분을 보완해가며 시청자에게 드리는 ‘선물’을 완성해 나갔다.

제작 결과 및 소감

계속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려는 심수봉 씨의 의지와 KBS 기획 의도가 정확히 일치하며 라이브 공연의 비대면 콘서트와 공연실황 녹화방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라이브 공연의 믹스작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음향감독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음색을 위주로 할지, 음장감을 위주로 할지...

이번 '피어나라 대한민국-심수봉' 공연실황의 최종 믹스는 위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느꼈다. 음향의 세계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GIGO : Garbage In, Garbage Out)”

좋은 믹스 완성작이 되려면 먼저, 재료가 좋아야 한다. 이번 공연 녹화 과정에서 심수봉 씨를 비롯한 모든 음향팀(방송, PA, 스테이지 모니터, 밴드 등)의 협업과 공통된 목표 지향이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수봉 씨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해준 연출팀도 한몫했다.

이와 더불어 심수봉 씨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보이스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이를 믹스에 적용하려는 우리 음향감독들의 의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성공적인 방송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실패보다 무섭다는 ‘성공의 덫(Success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과거의 성공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마음가짐을 초기화(Reset)한다. 🔄